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과 시사점

책임작성 | 최종민 연구위원(02-707-8247, jmchoi@kosbi.re.kr)
박재성 연구위원(02-707-9830, jspark@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설문조사 분석
3. 시사점

| 요약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와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수급 지체 충격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전반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해외 소비의 급감과 생산 차질로 인해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 2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원·부자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금 운영 여력 면에서는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10곳 중 4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채 3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하여,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개선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섬유와 수요기업의 매출 둔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큰 자동차, 가전, 조선 등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며, 경기 급랭이 지속될 경우 고용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과 수출지 통관 지연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생산 중단과 수입허가 및 통관지연, 거래국가 방문 어려움 등을 호소
- 해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의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종에서 리쇼어링 수요를 포착
- “과감한 금융 및 고용안정 지원”, “비상수출체계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운영 시급
 -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
 -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 및 경기부양용 금융지원의 조속한 집행과 한시적 세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추가 연장 등
 - 선제적인 고용 안정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로 추가 상향 조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 브랜드 K 활용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비상 수출 체계 운영
 - 신뢰, 투명, 공정, 포용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제품 및 서비스(브랜드 K)의 수요를 분출시키는 적극적 수출 대응 전략 추진
 - 동종·유사업체를 대상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 증명서 소지 기업인 해외 입국 허용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필요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지역 벨류체인(Regional Value Chain) 부상에 대응하는 체계적 리쇼어링 정책 추진
 - 고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리쇼어링 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우선지원, 규제자유특구와 리쇼어링 중소기업 연계 등

1. 서론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global pandemic)으로 주요 거래국의 소비감소, 생산 및 거래중단이 예상되며, 국내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18년 기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각각 35.2%와 31.1%로 일본('17년 기준 각각 14.4%, 13.8%)이나 중국('17년 기준 각각 18.8%, 15.2%)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17억 달러로 전년대비 26.9% 감소하였으며, 수입액 역시 전년대비 18.6% 감소 (관세청, 2020)
 - 수출: 중국(-17%), 미국(-17.5%), 유럽(-32.6%), 베트남(-39.5%), 일본(-20%)
 - 수입: 중국(-3.5%), 미국(-13.2%), 유럽(-12.4%), 일본(-16.4%)
 -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입 악화가 본격적으로 심화 및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유동성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
- 주요 교역국의 입국금지 및 심사 강화는 입·출국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무역 활동을 제한
 - 4월 20일 오전 10시 기준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으로 유엔 회원국(193개)의 94.8%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3월 초 102개국(52.8%)에 비해 1.8배 증가
 - 무역 상대국의 이동제한, 운송 차질이 확산됨에 따라서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은 무역 거래를 위한 해외 방문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수출 차질에 따른 영향과 원·부자재 수입 차질에 따른 영향으로 구분하여 피해현황 및 주요 원인 분석을 실시

2. 설문조사 분석

가. 조사 방법

- 한국기업데이터에 수록된 2018년 기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10개 분야 제조 중소기업 대상 업종 층화 추출 방식 설문
 - 10개 분야 업종으로 층화하여 임의할당 방식으로 추출
 -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조사기간: 2020. 4. 10 ~ 4. 14
 - 업종별 지역별 응답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 업종별 응답 분포

(단위 : 개(%))

구분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합계
자동차	48 (14.3)	40 (11.9)	88 (13.1)
조선	21 (6.3)	22 (6.5)	43 (6.4)
일반기계	50 (14.9)	49 (14.6)	99 (14.7)
철강	18 (5.4)	28 (8.3)	46 (6.8)
석유화학·정유	40 (11.9)	35 (10.4)	75 (11.2)
섬유	49 (14.6)	41 (12.2)	90 (13.4)
가전	25 (7.4)	25 (7.4)	50 (7.4)
정보통신기기	44 (13.1)	50 (14.9)	94 (14.0)
반도체·디스플레이	33 (9.8)	35 (10.4)	68 (10.1)
2차전지	8 (2.4)	11 (3.3)	19 (2.8)
소계	336 (100.0)	336 (100)	672 (100.0)

나. 설문 결과

a. 주요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경로

(수출 중소기업) 귀하의 사업 분야의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귀하의 원부자재 주요 수입 국가는 어디입니까?

- 주요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국가는 아시아와 북미 대륙에 위치하며, 기업 특성 및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수출 중소기업) 아시아의 비중이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자동차와 섬유 업종은 북미 비중이 40% 이상
 - 자동차와 섬유 업종 관련 수출기업의 경우, 아시아 비중이 각각 54.2%, 55.1%이며 그 외 북미가 각각 52.1%, 40.8%임
 -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대부분 90%이나, 조선, 기계, 정유, 2차전지는 북미와 유럽의 비중이 큰 편
 - 정유, 조선, 일반기계 업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경우, 유럽 비중은 각각 50.0%, 31.8%, 36.7%임

〈표 2〉 업종별 주요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경로

(단위 : 개(%))

구분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기타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기타
자동차	54.2	52.1	29.2	16.7	12.5	90.0	5.0	20.0	5.0	5.0
조선	76.2	23.8	19.0	4.8	4.8	63.6	9.1	31.8	0.0	0.0
일반기계	84.0	22.0	24.0	12.0	4.0	79.6	14.3	36.7	0.0	0.0
철강	72.2	16.7	11.1	0.0	5.6	89.3	3.6	10.7	0.0	0.0
석유화학·정유	83.3	16.7	11.7	3.3	3.3	71.0	12.0	31.0	0.0	0.0
섬유	55.1	40.8	26.5	8.2	6.1	87.8	4.9	7.3	0.0	2.4
가전	84.0	12.0	8.0	4.0	12.0	96.0	0.0	8.0	0.0	0.0
정보통신기기	84.1	20.5	29.5	4.5	11.4	92.0	8.0	18.0	0.0	2.0
반도체·디스플레이	88.2	17.4	2.1	0.0	2.1	91.0	4.0	7.0	0.0	0.0
2차전지	87.5	12.5	0.0	0.0	0.0	72.7	9.1	18.2	0.0	0.0
전체평균	74.4	26.8	19.6	7.1	7.1	85.7	7.1	18.5	0.6	1.2

주 : 표 안의 수치는 설문조사 표본의 복수 응답 비율을 제시한 것임.
 음영부분은 아시아를 제외한 주요 응답.

b. 주요 피해 현황

(수출 중소기업)

귀하의 사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대비 매출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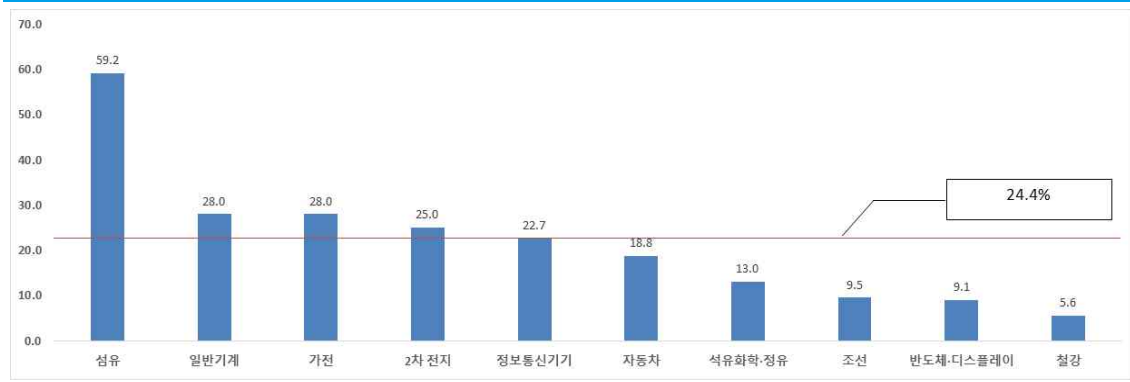
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대비 원부자재 수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출 중소기업은 매출감소로,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은 수급 지체로 충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중소기업) 해외 소비의 급감과 생산 차질로 인해 섬유 업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섬유(59.2%), 일반기계(28.0%), 가전(28.0%), 2차전지(25.0%) 순이며, 섬유 업종의 비율은 평균의 2배 이상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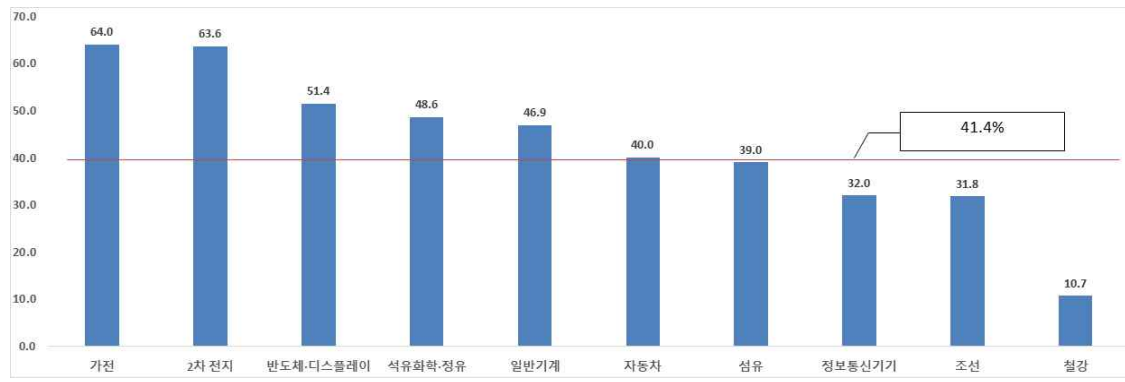
[그림 1] 수출기업의 매출액 변화



●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가전, 2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수급지체의 영향이 큼

- 전년대비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지체가 3개월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전(64.0%), 2차전지(63.6%), 반도체·디스플레이(51.4%), 석유화학·정유(48.6%), 일반기계(46.9%) 순

[그림 2]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수입 영향



주 : 전년대비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자체 여부(예상), 3개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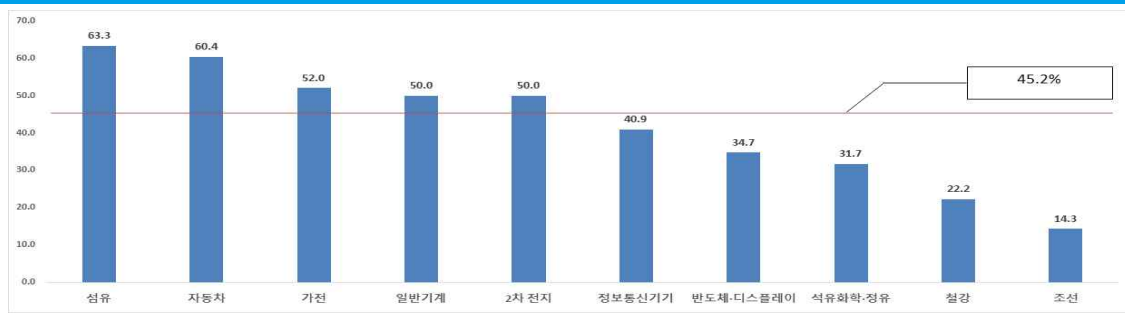
c. 자금 운용 가능 기간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귀사가 보유한 인건비와 구매대금을 포함한 운전자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 섬유, 자동차, 가전 등의 업종에서 운전자금 운영이 가능한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나타나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개선 필요
- (수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 가능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섬유(63.3%), 자동차(60.4%), 가전(52.0%), 일반기계(50.0%), 2차 전지(50.0%) 순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유, 철강, 조선은 다소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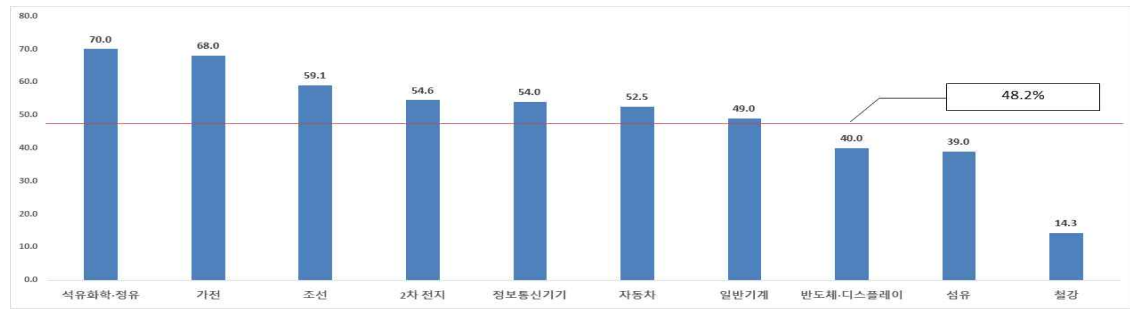
[그림 3] 수출기업의 운전자금 운용 가능 기간 (3개월 이내)



-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 가능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석유화학·정유(70.0%), 가전(68.0%), 조선(59.1%), 2차전지(54.6%), 정보통신기기(54.0%), 자동차(52.5%), 일반기계(49.0) 등의 순

- 반도체·디스플레이, 섬유, 철강은 다소 양호

[그림 4]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운전자금 운용 가능 기간 (3개월 이내)



d. 고용 사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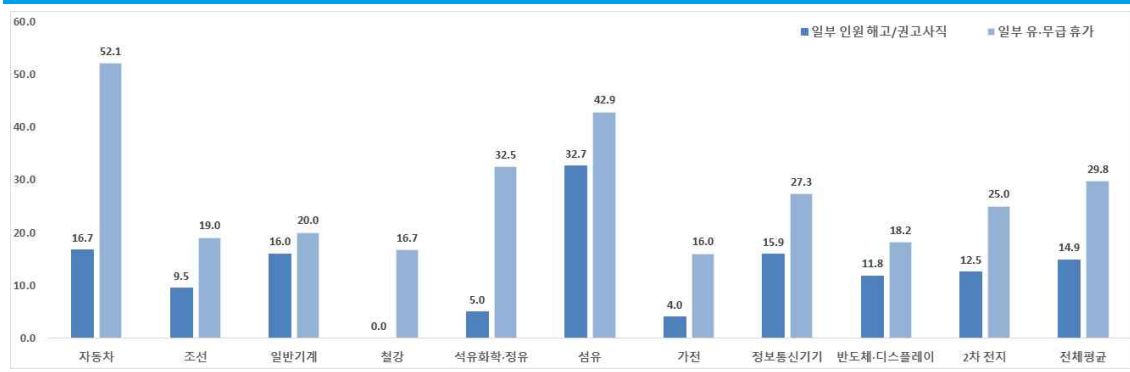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해 귀사의 고용사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해당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섬유, 자동차, 가전, 조선 등 공급자 위주의 전통 제조업에서 고용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경기 급랭이 지속될 경우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중소기업) “인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업종은 섬유(32.7%)이며, “유·무급 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52.1%), 섬유(42.9%), 석유화학·정유(32.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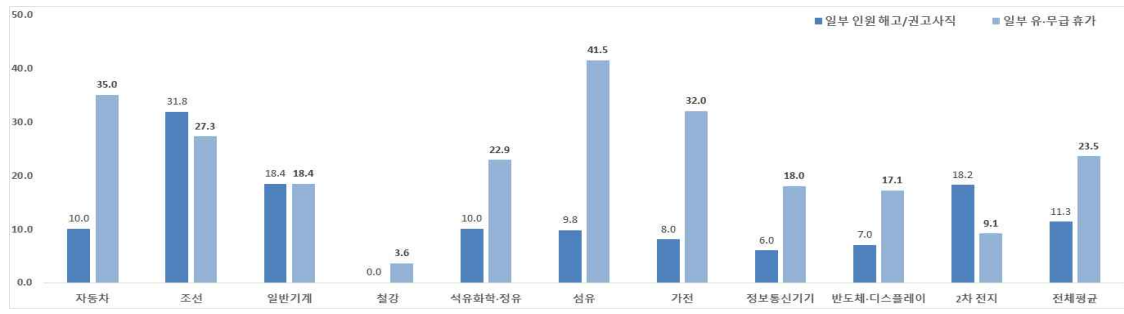
[그림 5] 수출기업의 고용사정 변화



주 : 표 안의 수치는 설문조사 표본의 복수 응답 비율임.

-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인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업종은 조선(31.8%)이며, “유·무급 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41.5%), 자동차(35.0%) 가전(32.0%) 등

[그림 6]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고용사정 변화



주 :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고용사정 변화에 대한 복수응답임.

e. 업종별 주요 영향 원인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귀하의 사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수입)에 영향을 받는 가장 큰 원인 2가지는 무엇입니까?

- 수출 중소기업 및 원·부자재 수입기업은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 통관 지연 등의 애로를 호소

- (수출 중소기업)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을 문제로 꼽은 응답이 다수이며, 이외 “수출지 통관 지연”을 주요 영향으로 인식

<표 3> 업종별 수출 주요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주요 영향 원인					
	수출지 통관지연	물류비용 증가	해외거래처 거래중단	납기관련 법적분쟁	거래처 확보 어려움	영향없음
자동차	18.8	4.2	83.3	2.1	22.9	4.2
조선	33.3	0.0	47.6	0.0	19.0	14.3
일반기계	34.0	12.0	54.0	8.0	26.0	6.0
철강	22.2	11.1	77.8	0.0	27.8	0.0
석유화학·정유	32.5	12.5	70.0	2.5	25.0	5.0
섬유	38.8	12.2	79.6	12.2	26.5	2.0
가전	36.0	24.0	52.0	4.0	32.0	0.0
정보통신기기	36.4	18.2	65.9	4.5	25.0	0.0
반도체·디스플레이	36.4	24.2	39.4	12.1	27.3	15.2
2차전지	62.5	25.0	75.0	12.5	0.0	0.0
전체평균	33.0	13.4	65.2	6.0	25.0	4.7

주 : 표 안의 수치는 설문조사 표본의 복수 응답 비율을 제시하였고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음영부분은 주요 응답.

-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거래처의 생산중단”이 문제라는 응답이 다수이며, 이 외 “수입허가 및 통관지연”, “거래국가 방문 어려움” 등을 호소

〈표 4〉 업종별 원·부자재 수입 주요 영향 요인

(단위 : %)

구분	주요 영향 원인						
	수입허가 및 통관지연	거래국가 방문 어려움	납기지체 거래처 분쟁	거래처의 생산중단	원부자재 단가상승 거래포기	영향없음	기타
자동차	17.5	50.0	25.0	67.5	10.0	2.5	5.0
조선	54.5	31.8	0.0	54.5	4.5	9.1	9.1
일반기계	36.7	49.0	20.4	49.0	14.3	0.0	4.1
철강	32.1	39.3	14.3	35.7	14.3	14.3	7.1
석유화학·정유	40.0	37.1	11.4	51.4	25.7	5.7	2.9
섬유	39.0	31.7	17.1	58.5	7.3	12.2	2.4
가전	24.0	20.0	12.0	52.0	20.0	0.0	12.0
정보통신기기	32.0	30.0	42.0	48.0	18.0	2.0	0.0
반도체·디스플레이	40.0	22.9	20.0	40.0	11.4	11.4	2.9
2차전지	54.5	27.3	0.0	72.7	9.1	9.1	0.0
전체평균	35.1	35.4	19.6	51.8	14.0	6.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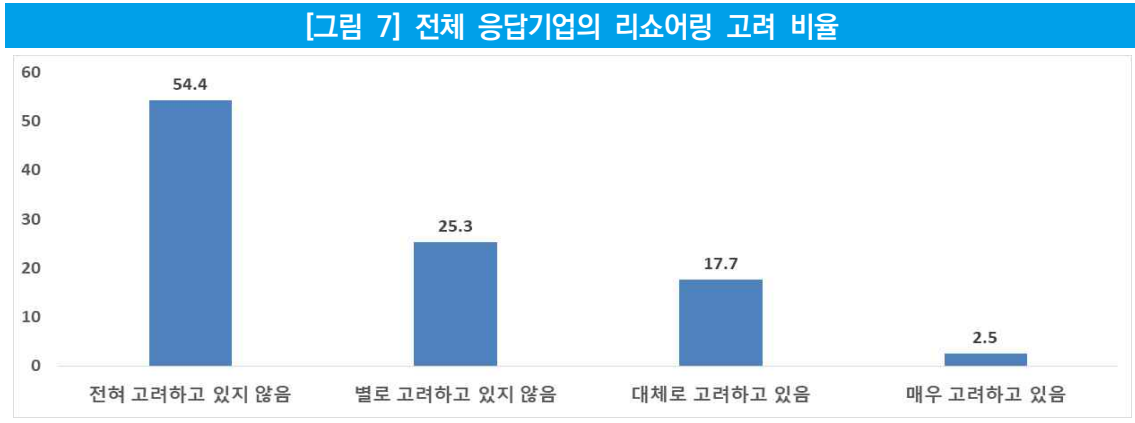
주 : 표 안의 수치는 설문조사 표본의 복수 응답 비율을 제시하였고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음영부분은 주요 응답.

f.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의도: 리쇼어링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귀하의 사업 분야에서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국내 이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업 특성 및 업종별이 상이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업종에서 리쇼어링 수요 포착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확대 예상
 - 전체 672개 응답기업 중 해외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79개로 이 중 20.2%가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음
 -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섬유 업종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정유,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업종 중소기업이 리쇼어링을 고려



주 : 전체 수출기업 응답 중 해외 공장을 보유한 35개 기업과 원·부자재 수입기업 중 해외공장을 보유한 44개 기업 기준.

3.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중소기업과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 필요
 - 글로벌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3차 추경에서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
 -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대다수가 운전자금 운영 가능 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라는 점에서, 긴급한 유동성 공급과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30조) 및 경기부양용 금융지원(6조)(산업통상자원부, 2020b)의 조속한 집행과 한시적인 세금 감면 또는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세금 납부 유예 추가 연장 등
-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고용사정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고용안정 지원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최대 90%로 수준을 상향하였으나(고용노동부, 2020a) 일부 업종에 한하여 추가 상향하는 논의 필요
 -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종(고용노동부, 2020b) 등에서 섬유(의류), 자동차 등 주요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 분야로 선제적 확대

- 브랜드 K 활용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비상 수출 체계 운영
 - 신뢰, 투명, 공정, 포용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제품 및 서비스(브랜드 K)의 수요를 분출시키는 적극적 수출 대응 전략 추진
 - 수출 피해가 큰 중소기업 및 동종·유사업체를 대상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여 해외 활동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 증명서 소지 기업인의 해외 입국 허용 등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운영
 -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한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 및 원가 경쟁력 확보
 -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부자재 긴급 항공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의 부담완화 품목 확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코로나19 유망상품 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사업’, ‘긴급 지사화 사업’ 등의 기업인 홍보 및 활용 촉진
-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하여 운영 중인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중소기업중앙회, 2020)의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적극적 대응
-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와해 후 지역 밸류체인(Regional Value Chain) 부상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 선정요건, 입지·설비 보조금지원 상향, 세액 및 관세감면 등 리쇼어링 2.0 정책 기조 전환 필요(김상신, 2018)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의 한시적 완화, 리쇼어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우선 지원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 규제자유특구와 리쇼어링 중소기업 연계 등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20a),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상향하는 근거 마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0b),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김상신(2018), 「리쇼어링 2.0 필요: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2020), 「산업부장관, 수출기업 '돈맥경화' 풀어준다 (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구매 플랫폼: <https://kbiz.e-sang.net/>

[부록 1] 업종별 응답

[표 1] 피해현황 응답

구분	수출 중소기업(매출액 변화)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수입 지체)					
	50% 이상 감소	50% 이하 25% 이상	25% 이하 10% 이상	10% 이하 감소	유지 또는 증가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영향없음
자동차	18.8	39.6	25.0	8.3	8.3	12.5	37.5	22.5	17.5	0.0	5.0
조선	9.5	4.8	28.6	4.8	52.4	22.7	36.4	13.6	18.2	0.0	9.1
일반기계	28.0	22.0	18.0	8.0	24.0	14.3	36.7	28.6	18.4	0.0	2.0
철강	5.6	22.2	33.3	27.8	11.1	28.6	21.4	3.6	3.6	3.6	39.3
석유화학·정유	12.5	20.0	40.0	17.5	10.0	20.0	22.9	37.1	11.4	0.0	5.7
섬유	59.2	26.5	8.2	2.0	4.1	14.6	26.8	24.4	9.8	4.9	17.1
가전	28.0	20.0	20.0	20.0	12.0	8.0	28.0	32.0	28.0	4.0	0.0
정보통신기기	22.7	27.3	13.6	15.9	20.5	20.0	46.0	16.0	14.0	2.0	0.0
반도체·디스플레이	9.1	21.2	27.3	9.1	33.3	8.6	28.6	34.3	8.6	8.6	11.4
2차전지	25.0	25.0	25.0	12.5	12.5	0.0	18.2	45.5	18.2	0.0	18.2
소계	24.4	24.4	22.3	11.3	17.6	15.8	32.1	24.7	14.3	2.4	9.2

주 :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음영부분은 주요 응답.

[표 2] 운전자금 운용기간

구분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 이상	영향없음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 이상	영향없음
자동차	60.4	18.8	12.5	8.3	0.0	52.5	22.5	12.5	12.5	0.0
조선	14.3	28.6	9.5	38.1	9.5	59.1	13.6	13.6	13.6	0.0
일반기계	50.0	30.0	8.0	12.0	0.0	49.0	20.4	20.4	8.2	2.0
철강	22.2	22.2	22.2	33.3	0.0	14.3	21.4	10.7	46.4	7.1
석유화학·정유	37.5	30.0	15.0	15.0	2.5	65.7	8.6	5.7	14.3	5.7
섬유	63.3	26.5	4.1	6.1	0.0	39.0	22.0	19.5	12.2	7.3
가전	52.0	20.0	20.0	8.0	0.0	68.0	20.0	8.0	4.0	0.0
정보통신기기	40.9	38.6	15.9	4.6	0.0	54.0	24.0	12.0	8.0	2.0
반도체·디스플레이	30.3	39.4	15.2	15.2	0.0	31.4	40.0	17.1	8.6	2.9
2차전지	50.0	25.0	0.0	25.0	0.0	54.5	27.3	9.1	9.1	0.0
소계	45.2	28.6	12.2	13.1	0.9	48.2	22.0	13.7	13.1	3.0

주 : 음영부분은 주요 영향원인. 음영부분은 주요 응답.

[표 3] 고용사정 변화

구분	수출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현행 고용 유지	일부 인원 해고/ 권고 사직	일부 유급 휴직 전환	일부 무급 휴직 전환	추가 고용 예정	현행 고용 유지	일부 인원 해고/ 권고 사직	일부 유급 휴직 전환	일부 무급 휴직 전환	추가 고용 예정
자동차	47.9	16.7	22.9	29.2	0.0	52.5	10.0	20.0	15.0	5.0
조선	76.2	9.5	0.0	19.0	0.0	45.5	31.8	4.5	22.7	0.0
일반기계	70.0	16.0	0.0	20.0	4.0	61.2	18.4	2.0	16.3	10.2
철강	77.8	0.0	11.1	5.6	0.0	96.4	0.0	3.6	0.0	0.0
석유화학·정유	70.0	7.5	17.5	15.0	5.0	74.3	14.3	5.7	17.1	2.9
섬유	38.8	32.7	18.4	24.5	0.0	58.5	9.8	9.8	31.7	0.0
가전	76.0	4.0	4.0	12.0	0.0	60.0	8.0	0.0	32.0	0.0
정보통신기기	50.0	15.9	13.6	13.6	6.8	66.0	6.0	8.0	10.0	10.0
반도체·디스플레이	72.7	12.1	9.1	9.1	6.1	77.1	5.7	2.9	14.3	0.0
2차전지	50.0	12.5	12.5	12.5	12.5	54.5	18.2	0.0	9.1	18.2
소계	67.6	14.8	11.9	17.9	3.0	75.9	11.3	6.6	17.0	4.8

주 : 표 안의 수치는 설문조사 표본의 복수 응답 비율을 제시하였고,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음영부분은 주요 응답.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병헌

편집인 : 전인우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